

천사들 - 금요 양성 2024년 6월 7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.

천사들에 대해 궁금해 본적이 있습니까?

- 성경이 보통으로 천사라고 부르는,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이다. 성전 전체의 증언이 일치하듯이, 성경의 증언도 명백하다.(가톨릭 교회 교리서 328)
-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. “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.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이다. 그들은 “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”(마태 18,10) 때문에, “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,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”(시편 103[102],20)이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29)
-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.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, 죽지 않는 피조물들이다.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.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한다.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0)
- 그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,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,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2)
- 사람은 일생 동안,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,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. “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.” 이 지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, 하느님 안에 결합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복된 공동체에 참여한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6)

가톨릭 교회 교리 328-336 전체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이용하시오.

영어: <https://www.catholicculture.org/culture/library/catechism/> (searchable)

한글: <https://www.cbck.or.kr/Documents/Catechism/Read/>

- 전통적으로 천사들은 구(9) “품” 또는 “등급”으로 분류된다. 이런 분류는 성서에서 발견되는 아홉개의

천사 이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. 이것은 수용된 보편 교회의 믿음이지 교의는 아니다. 가톨릭 교리서에는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. 이 등급(품)에 준하여 보면, 오직 대천사들과 “정규”천사들만 인간들과 접촉을 한다. 여기에 **두가지 예외**가 있는데 하나는 세라핌 천사가 예언자 이사야의 입술에 타는 속을 대어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베르나 산에서 프란시스 성인에게 환시로 세라핌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. (Aleteia 참조: <https://aleteia.org/2017/09/28/the-9-choirs-of-angels-and-the-roles-given-them-by-god/>)

-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들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신학대전에 써 놓았다. (New Advent 참조: <https://www.newadvent.org/summa/1108.htm>)

- 구품 천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: 세라핌, 케루빔, 좌품, 권품, 능품, 역품, 대천사, 주품, 천사 (각 천사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다음 링크 참조)
<https://www.catholic.org/saints/angels/angelchoir.php>)

- 궁금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오 - “성경과 교회는 일곱분의 대천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. 하지만 우리는 미카엘, 가브리엘, 라파엘 이렇게 세분의 이름만 호칭한다.” 성경에 출처를 두지 않은 네개의 이름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.

-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세라핌이다. 이것은 프란치스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 세라핌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찬미한다. 세라핌은 “불타는 자들”이다.” 성 프란시스는 라베르나산에서 환시속에서 세라핌의 방문을 받았다. 이 사실이 그를 세라핌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. 첼라노의 토마스는 세라핌 천사의 여섯개의 날개에 대해 언급했다.

- **하느님께로 가는 영혼의 여정**이란 책에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“프란시스 성인과 그의 영감을 따르고자하는 사람들의 포괄적이고 충만한 영성의 척도와 깨우침의 정도를 묘사하는 데에 세라핌의 여섯 날개의 이미지를 사용한다. (아래의 링크 참조)

- John Sullivan 작은 형제회 신부님이 미국 형제회 웹사이트에 “라베르나 산위에서의 세라핌의 환시”에 대한 훌륭한 기사를 올렸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그 글에 설명된 세라핌의 여섯 날개에 대한 보나벤투라 성인의 설명을 읽어볼 수 있다.

<https://secularfranciscansusa.org/topics-for-keeping-our-focus-on-st-francis-of-assisi/>

토의 및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

+천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. 당신의 삶에서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?

+ “라베르나 산에서의 세라핌의 환시”를 읽고 프란시스 성인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.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? 성인의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 당신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?